

전주 한지 연꽃으로 피다

참좋은우리절 전통등 만들기 대회 '눈길'



참좋은우리절이 '천년 전주한지 전통등 만들기 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민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인 전주 한지의 우수성과 실용성을 알리고 전주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천년 전주한지 전통등 만들기 대회'를 개최했다.

5월 2일 참좋은우리절 신행연합회와 전주한지포럼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대회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부문을 신설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수의 등 한지리류, 한지 소품을 전시하는 한지상품 전시전과 한지의상 입어보기, 투호놀이, 떡메치기등의 전통 민속놀이체험, 연꽃만들기, 한지타본,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삼보일배 등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푸른 마음 시심에 담아

군산 흥천사 월명공원에서 중·고생 백일장

군산 흥천사(회주 지환·주지 법회)는 4월 18일 '제1회 월명공원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고, 5월 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앞서 수상 학생들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군산의 자랑인 월명공원의 아름다움을 통해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군산시 재학생·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군산시 관내 중·고교 30개교 약 350여 학생들이 운문부와 산문부로 나누어 '연등' '부처님오신날' '탑'



4월 18일 제1회 월명공원 백일장 대회에서 참가학생들이 글을 짓고 있다.

'산사로 가는 길' '별' '바람' 등의 시제로 글 솜씨를 겨루었다.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은 "금년 처음 실시된 백일장 대회를 계기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장기를 마음껏 자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군산시 중·고생들의 멋진 글 솜씨를 발굴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회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운문부 장원에 최보람(대성중1)양의 '별'과 황미지(군산고2)양의 '탑'이 산문부 장원에는 강누리(진포중3)양의 '부처님오신날-눈물 한결, 미소 한바구니', 조연우(중앙여고1)양의 '산사로 가는길-산사예찬'이 차지했다. 고등부 장원에는 각 50만원, 중등부 장원에는 3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고 다른 수상자들에게도 장학금이 차등 지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살계 법문, 수계시 및 법성도 요집, 보조국사 종재를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행사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해 하동 칠불사 선원장 통광 스님, 화엄사 현산 스님, 조계종 종회의장 보선 스님, 서울 불광사 지정 스님, 강릉 등명라가사 청우 스님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사 보조국사 종재·수계법회 봉행

송보종찰 송광사는 4월 21~22일 송광사 경내에서 불일보조국사 종재 및 송광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제799주기 보조국사 종재와 더불어 진행된 이번 수계법회는 21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박종석 화백 박물관 초대전 개막식, 보살계법문, 전국 불일회 총회, 점등식, 철야법문으로 진행됐다. 22일에는 계첩매포와 보

오색연등 밝혀 부처님 마중

호남지역 봉축열기 고조... 사암련 단위 연등축제 봉행



전북봉축위원회는 4월 25일 불기 2553년을 의미하는 대형 비빔밥(2553인분)을 준비해 대중들과 나눴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봉축연등이 전국을 연화장세계로 장엄한 가운데 호남지역 불교계의 봉축열기가 뜨겁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4월 28일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빛고를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3만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행사는 광주지역 중심가 일대에서 자비신행회의 무료급식 '따뜻한 밥상'을 시작으로 연등법회, 전통등 행진, 대동한마당 순으로 펼쳐졌다.

연등법회에서 조계종 前 포교원장 압도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을 증생들이 2600여 년 동안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봉축하는 것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건성성불(見性成佛)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성오 스님은 봉행사에서 "이번 부처님 오신날은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바른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이웃과 더불어 실천하는 자리"라며 "희망의 연등 불빛이 온누리에 비쳐 중생의 고통이 말끔히 걷히고 밝은 세상이 환하게 들어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통등행진에는 불자들이마다 손에 든 3만여 개의 등불이 광주 거리를 밝혔다. 특히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선원장 혜월)과 미륵사(주지 목언) 신도 등으로 구성된 연등단은 광주공원에서 아시아 문화전당까지 5km 거리에서 가무로 연등축제의 분위기를 높였다.

행진 후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열린 대동한마당에는 원각사 어린이회 가야금병창, 파라미타 광주지부의 댄스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연등단과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 등이 어우러져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이뤘다.

이에 앞서 26일, 순천시사암연합회(회장 혜인)와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순천 동천 고수부지에서 '2009 순천 유등축제'를 열었다.

3000여 불자들이 참여한 행사에서 혜인 스님은 "2013년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개최유치를 순천시민들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며 "빈자일등(貧者一燈) 이야기에서 나오는 가르침처럼 진솔한 마음의 등을 밝히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불자들은 저마다 소원과 희망을 담은 유등을 풍선에 띄우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매년 음악회를 통해 나누시민들에게 사찰음악의 진수를 선보여 온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도 25일 네 번째 연등음악회를 개최해 봉축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타악그룹 열우의 개막에 이어 가수 강산애, 바이올린 송원진, 피아노 송세진씨를 비롯해 무용가 한영애의 퍼포먼스, 색소폰 신유식, 바리톤 황성철의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전북 도내 각 지역에서도 25~26일 연등축제가 일제히 봉행됐다.

25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과 고창 군민체육관에서 불교문화체험행사와 연등축제가 개최됐고, 26일에는 익산 중앙체육공원과 군산 신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등축제가 화려한 연화장 세계를

연출했다.

전북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금산사 주지)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과 원행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법은 스님을 비롯한 현태종, 진각종 등 각 종단을 대표하는 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등 3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연등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연등축제 직전행사에서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지 2553년을 의미하는 2553인분의 대형 비빔밥을 대중들과 함께 나눠먹는 이벤트를 시작으로 각 사찰의 신도대표들의 숨은 장기를 뽐내는 장기자랑, 연꽃 만들기 체험,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켜주는 관불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원행 스님은 대회사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긍정적인 사고를 잃지 말고 이웃과 함께하려는 정신이 있어야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잘 새겨 보살행을 펼쳐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심한 비바람 속에 전주시청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연등축제 기념식에서 동참한 사부대중들은 쏟아지는 빗속에도 큰 동요 없이 부처님오신날을 경탄하고 지속된 가뭄을 해소하는 꽃비로 승화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불자들은 비가 갠 후 전주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놀이와 함께 농악대를 앞세우고 각 사찰에서 준비한 갖가지 아름다운 부처님오신날 장엄등을 앞세운 채 전주시청광장에서 팔달로와 오거리를 거쳐 코야백화

점을 돌아오는 연등축제를 벌였다.

같은 날, 고창 선운사(주지 범만)도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불교문화축제와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1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진행된 문화축제에서는 전통 한지등 만들기 체험, 천연 비누만들기, 한지공예, 풍선아트, 가운 짜주기, 페이스페인팅, 다도체험과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고창의 양민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알려준 선운사 창건주 겸단 선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은염(報恩鹽)이운식이 재현돼 눈길을 끌었다.

익산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우성·백운사 주지)는 26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스님과 지역불자 5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군산시 사암연합회와 군산신도연합회도 26일 나운동 소재 신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각 사찰에서 준비한 갖가지 장엄물을 앞세우고 군산시의 발전과 불자들의 개인 염원을 담은 연등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시민들과 함께 즐거운 축제 한마당을 벌였다.

한편, 고창 선운사(주지 범만)는 29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군산교도소 강당에서 불자제소자들을 위한 봉축법요식을 봉행해 눈길을 끌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증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